



#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에 대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인식 비교 연구: 대일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지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냉전기 한국의 두 대통령인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각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두 대통령의 ‘대일 인식’에 주목하였다.

이승만은 6·25전쟁 이후, 미국의 관대한 대일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한국임을 주장했다. 이는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그가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정희는 정권 초기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 이후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가 상승하자, 그 역시 한미관계를 미일관계와 동등한 정도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대응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한미일 삼각에서 한국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이승만, 박정희, 한미일 삼각관계, 위계성, 대일 인식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방법

냉전기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거쳐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관계는 한미와 미일 사이의 동맹과 “유사동맹”인 한일관계(차빅터, 2004)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대주권국가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리 ‘위계성’과 ‘지위’에 대한 이해로써 이에 접근할 수 있다(신옥희, 2020: 60). 이 삼각은 냉전기 자유 진영을 대표하던 미국과 동아시아 냉전의 주체였던 일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신옥희, 2020: 60), 그 위계성이 비교적 명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sup>

<sup>1</sup> 이는 해당 시기를 전후한 때,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각각 다르게 평가했던

그렇다면 한국은 한미일 삼각관계의 이러한 위계성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냉전 초중반기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박정희가 각각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일종의 틀로서, 본고는 두 대통령의 ‘대일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미일 삼각의 위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추적하는 데 있어 ‘대일 인식’을 틀로 선택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일본처럼 되고 싶어 했던’ 까닭이다. 여기서 ‘일본처럼 되고 싶어 했던’이라는 표현은 두 대통령이 일본을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 파트너라는 지위를 한국이 차지하게 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성장을 바라보며 한국을 발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각각 한국이 일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랐다(박태균, 2010: 117-119; 이준식, 2009: 245-247). 물론 국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외교정책에 있어 이승만이 일본과의 협력을 원천 거부한 것도, 박정희가 일본에 대해 아무 경계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대체로 전자의 대일 인식은 부정적이었고 후자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렇듯 다른 대일 인식이 위계적인 한미일 관계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론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대일 인식을 통해, 두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의 문헌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두 대통령의 개인적 인식의 영역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서한문, 자서전과 같은 문헌들을 주로 참고할 것이다. 이때 연구의 기간은 두

이유도 있을 것이다(차상철, 2001: 129; Kim, 2009: 157).

<sup>2</sup> 물론 이승만·박정희의 대일 인식을 부정적·긍정적 일색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승만이 한일 간 협력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박정희 또한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는, 두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서로가 상대적인 측면에서 긍정·부정적이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일 협상에 대하여”, 연설 일자 1949. 9. 20.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533&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533&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5.) 참고; 박태균, 2006: 128-129.

대통령 각각의 집권기로 설정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미일 삼각의 역할 분담과 그 형성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종관(2010)은 태평양전쟁 후 한미일 세 국가 간 공조 관계의 형성을 대략 살펴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공산권을 방어하는 제1선으로 한국을, 제2선에서의 후방 지원 국가로 일본을 인식하였다고 한다(이종관, 2010: 212). 정영신(2012) 또한 이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안보분업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한국과 일본이 각각 전방과 후방의 기지국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한·일 내부 시민사회와 자기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정영신, 2012). 한편 박영준(2021: 37)은 60년대 말 북한의 대남 도발에 한국이 안보를 위한 외교를 펼쳤고, 이에 따라 한·미와 한·일 사이 안보협력이 점차 그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최희식(2011: 306-307)은 1968년 이후 한국은 자주국방을, 미국은 이를 원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본은 한국조항의 발표를 통해 자국의 안보적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한미일의 협력의 ‘냉전적 원형’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술한바, 한미일 삼각관계의 역할 분담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미일 삼각의 위계성에 관련하여서는 신육희(2020)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거치며 한미일 삼각관계가 위계를 띠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신육희, 2020: 60).

한편, 이 삼각관계를 이승만·박정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가 부제로 선택한 ‘대일 인식’에 관련한 주제들은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승만과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풍부했는데, 그의 대일 인식 혹은 대일 정책이 주로 주목받고 있었다. 최희식(2009: 121)은 이승만 집권 시기 한일관계를 한미일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당시 한국은 반일과 반공을 함께 추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박태균(2010: 117-119)은 이승만의 일본 인식이 미국의 대일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부

터 비롯하고 있음을 밝히며, 안보 분야에서 ‘또 다른 일본’이 되기를 희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진희(2006: 114-116)는 이승만의 대일정책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태평양동맹의 결성이 어렵게 되자 일본과의 관계를 타협적으로 바꾸어 미국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고 서술한다.

이승만에 그것에 비해, 박정희의 대일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정희와 관련한 주제의 논문에서 문상석(2021: 153-180)은 박정희가 일제강점기에 사회화를 겪었고 일제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다고 하였다. 주제는 약간씩 다르나, 신주백(2002: 120)과 한석정(2010: 123-124)도 이와 비슷하게 박정희의 대일관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본고가 살펴보고자 하는바, 한미일 관계 자체에 대한 냉전기 지도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술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위계에 대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인식이 각각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전후 형성되고 유지되던 위계적인 한미일 관계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냉전기 시작된 한미일의 삼각관계는 변용을 거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는 현재의 동북아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이승만의 위계성 인식

### 1. 반일적 태도: 전후 미국과의 의견 불합치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 의식과 태도를 견지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대일 태도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으나(박진희, 2006: 90-91), 일본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 실재했던 것 같다. 젊은 시절의 그는 한때 일본의 개화와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하면서부터 그 태도를 바꾸어 일본을 비

관하기 시작하였다(박영준, 2009: 83-90). 그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은 그 이후로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1941년에 집필한 본인의 저서에서 일본을 본디부터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라이의 후예로 기술하기에 이르는데(이승만, 2015: 35-36), 이는 일제 강점의 시대를 거치며 그가 했던 독립운동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차 대전이 막을 내린 후 성립된 긴밀한 미일관계를 그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독립한 직후에는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이유로 대일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다소 불분명했다(Swenson-Wright, 2005: 37-47). 미국이 대일 강화조약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한 계기는 바로 한국전쟁이었다(유지아, 2014: 96).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이승만의 연설과 담화문을 참고해 보면, 6·25전쟁 발발 이전에는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이 별다르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기 미국에 대한 이승만의 태도는 주로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고 군정 기간 수고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인 것으로 보인다.<sup>3</sup>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을 시행할 것을 그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sup>4</sup>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일본과 강화 및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이승만 담화문의 상당수에서 그가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대

<sup>3</sup>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우리의 각오”, 연설 일자 1948. 8. 15.,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444&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444&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5.); “미국 온정에 영원히 감사하자”, 연설 일자 1949. 6. 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512&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512&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sup>4</sup> 이승만은 그의 연설문 중 하나에서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며, “인국(隣國)을 사멸시키고 그 폐허 위에 자국에의 왕국건설을 꿈꾸는 국가를 집중붕괴(接腫崩壞)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해당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연설의 연도가 1949년으로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임을 고려했을 때 정황상 전범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온정에 영원히 감사하자”, 연설 일자 1949. 6. 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512&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512&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미국은 초반에 징벌의 성격이 강한 대일강화조약을 추진하였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 기조도 이와 비슷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수뇌부가 미국으로부터의 강한 대일 응징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박진희, 2006: 115).

일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저서에서 밝힌바, 이승만이 지난날 일본의 한국 강점을 미국이 묵인하였다고 생각했음을 감안한다면(이승만, 2015: 284-286; 김영호, 2016: 127). 미-일의 긴밀한 관계 재정립에 대한 그의 민감한 태도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 응당 배당되어야 할 원조가 친일적인 미국인들 때문에 전부 일본으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sup>5</sup> 50년대 초중반기의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원조금 또한 일본의 소비재 구매에 쓰도록 중용했기 때문에,<sup>6</sup> 이승만은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중요한 고려 대상임에 더 확신을 가졌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집권 초기의 이승만은 미국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있는 한편 패전국인 일본에 대하여 징벌적 조치를 단행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보인 실질적 행보는 이승만의 기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고, 그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일본을 동맹으로 선택하여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이승만의 서한들을 참고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그의 인식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로부터 임기 말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다.<sup>7</sup> 이승만은 미국의 호의적인

<sup>5</sup>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유 아주(亞洲) 국가는 미(美)의 대아정책(對亞政策)을 주시”, 연설 일자 1954. 8. 30.,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971&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971&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자발적 결심과 노력으로 파괴된 조국을 재건하자”, 연설 일자 1954. 9. 20.,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973&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0973&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sup>6</sup> 이는 일본의 경제를 돕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다(이철순, 2000: 391).

<sup>7</sup> 이는 다음의 서한들이 생산된 연도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 운동의 역사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아 Lemnitzer에게 보낸 서한”, 연도미상,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2>(검색일: 2021. 10. 18.);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생산연도 1953.07.1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48>(검색일: 2022. 2. 11.);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초고)”, 생산연도 1957. 12. 1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6>(검색일: 2022. 2. 10.); “이승만 대통령이 General John B. Coulter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60.01.06.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600>(검색일: 2021. 10. 18.) 참고.

대일본 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sup>8</sup>

## 2. 위계 비수용과 반일적 대응

제가 가장 권고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구상에 있어서 한국이 전략적 중심이자 충실하고 효과적인 동맹으로서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미국이 일본을 북아시아의 사건들이 형성되는 구심점으로 삼아 대일정책에 뚜렷이 집중해왔습니다.<sup>9</sup>

지금까지 살펴본 이승만의 대일·대미 태도는 상기한 인용문에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 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가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승만은 그 가운데서 한국이 ‘배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그가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위계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그가 대응한 방법 역시 ‘반일’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그는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써 일본에 관대한 미국의 태도를 바꾸고자 하였다.

이때 이승만이 주장했던 바는 비교적 간단하다. 일본은 결코 믿음직한 동맹 상대국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이 신뢰할 만한 국가이므로 미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한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일본의 ‘침략성’이었다. 이승만은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여전히 침략 야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재건을 완성하는 즉시 침략자로 재등장할 것이 분명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

<sup>8</sup>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생산연도 1953. 7. 1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48>(검색일: 2022. 2. 11.).

<sup>9</sup>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생산연도 1953. 7. 1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48>(검색일: 2022. 2. 11.).

했다.<sup>10</sup>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침략 성과 야욕을 기억하고 다시 일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그는 미국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동맹국으로서의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침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반일적 대일 인식은 전술했던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이는 정권 후반부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sup>11</sup>

이승만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바꾸기 위해 일본을 비판한 또 다른 근거는 ‘반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의 핵심 기조가 반공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으로 냉전 체제가 굳어지고 이념 대립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전쟁 이후 그의 대일본 비판에는 반공의 기치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일본이 공산 국가들과 친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일본이 다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sup>12</sup> 이는 시기적으로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다자주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며 소련과의 수교에 나선 이후부터<sup>13</sup>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시에

<sup>10</sup>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4. 11. 2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50>(검색일: 2021. 10. 18.);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초고)”, 생산연도 1957. 12. 1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6>(검색일: 2022. 2. 10.) 참고.

<sup>11</sup> 1958년 텔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승만은 여전히 일본의 지배 야욕을 경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편, 2012: 269-273).

<sup>12</sup> “이승만 대통령이 텔레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8. 1. 23.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70>(검색일: 2021. 10. 18.); 그는 일본이 공산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과 한국을 괴롭힌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초고)”, 생산연도 1957. 12. 1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6>(검색일: 2022. 2. 10.).

<sup>13</sup> 일소국교정상화는 1956년에 이루어졌다. 일본이 공산 국가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승만의 우려는 그 이전까지는 뚜렷이 보이지 않다가, 1956년 이후부터 그의 서한들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텔레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8. 1. 23.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70>(검색일: 2021. 10. 18.);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초고)”, 생산연도 1957. 12. 1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6>, 검색일: 2022. 2. 10.; “렘니처 장군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7. 6. 1.

그는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믿을 수 있을 만한 상대국임을 주지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sup>14</sup>

이승만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자유 진영의 한 지도자로서(신옥희, 2004: 45), 한국을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가 미국을 향해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일본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끊임없이 종용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영 내 한-일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음을 그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에 의해 한미일 관계가 위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정하지는 않았고, 우려와 설득, 때로는 위협적인 발언<sup>15</sup>을 통해 한-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승만은 반일적인 태도를 수단으로 삼아,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자유 진영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우위에 두거나 혹은 적어도 동등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그의 반일적 태도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였다(김일영, 2000: 259).

### III. 박정희의 위계성 인식

#### 1. 경제 발전과 위계적 삼각관계의 수용

박정희는 5·16쿠데타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민족의 산업혁명화, 그리고 경제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65>(검색일: 2022. 2. 10.); 하토야마 노선에 관련해서는 현진택(2013)을 참고.

<sup>14</sup>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아 Lemnitzer에게 보낸 서한”, 연도미상,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2>(검색일: 2021. 10. 18.).

<sup>15</sup> 이승만은 개인 서한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들이 소비에트와 협력할 것’이라며 은근히 언급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4. 11. 5.,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64>(검색일: 2021. 10. 18.).

적 발전과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박정희, 1997: 265). 이를 위해 그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바로 일본의 메이지유신이었다(이준식, 2009: 245-247). 박정희는 메이지유신이 일본을 극동의 강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었다고 보고(박정희, 1997: 172), 이처럼 한국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일본의 빠른 성장과 메이지유신을 주목했던 그의 대일 인식은 분명 이승만의 그것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sup>16</sup> 박정희는 일본이 동아시아의 강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의 동맹국으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미-일 간 긴밀한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박태균, 2006: 127-128; 박정희, 1962: 172). 그러나 정권 초기의 박정희는 이승만과는 달리 이러한 사실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긴밀한 미일관계를 수용하며, 그에 반발하기보다는 참여하는 쪽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히 함과 아울러 서독을 비롯한 서구 제국과의 친선과 경제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가까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한미 간 유대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 이 양국 간의 현안타결이 비단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의 유대강화를 위한 안목에서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하루속히 수립하고자 우리는 그 문호를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sup>17</sup>

또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방중의 우방으로써 공동운명체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으므로 한미 양국 간의 유대 강화와 일체의 우호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 상호간의 결속의 강화로써 극동의 안정과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경제에 입각하여 동시에 양국 간의 선린관계의 수립이 상호간 번영의 터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상황의 현실적인 요청임을 감안하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

<sup>16</sup> 전술하였지만 박정희가 일제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다고 보는 연구가 있으며, 주제는 다르나 박정희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박정희가 이승만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대일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문상석, 2021: 153-180; 신주백, 2002: 120; 한석정, 2010: 123-124).

<sup>17</sup> “1965년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 일자 1965. 1. 16.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5509&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5509&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하고자 초당적인 외교를 표준토록 할 것입니다.<sup>18</sup>

위의 연설문들에서 박정희는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 그리고 한일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박정희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한일관계에 대한 강화를 단순히 양국 관계가 아닌 극동 자유 진영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미일 동맹을 단순히 전통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극동 전반에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경제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박정희, 1962: 174),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미일관계를 축으로 극동의 자유주의 질서가 정립되었다는 점과 그 안에 한국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한국이 이 체제 안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서 안전과 협력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박태균, 2006: 128). 정권 초기의 박정희는 이렇듯 미-일에 편승하여 국익을 얻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문제는 미-일이 이끌어 가는 극동의 자유 진영 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도, 한국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그는 한일관계의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sup>19</sup> 이는 60년대 들어 미국에 새롭게 등장한 케네디 정권이 한일회담과 한일관계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나섰던 사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조아라, 2014: 275-282).

정리하자면, 정권 초기의 박정희는 한미일 간의 위계성을 수용하고 있었고 그에 참여하는 것으로 외교와 안보 및 경제에서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물론 박정희가 일본에 대해서 아무 경계심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도 일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견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박태균, 2006: 129). 덧붙여 박정

<sup>18</sup> “박정희 대통령연설”, 연설 일자 1964,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1339&catid=c\\_pa02064](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1339&catid=c_pa02064)(검색일: 2021. 10. 18.).

<sup>19</sup>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은 그의 정치 회고록에서 박정희가 한-일의 우호관계에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정렴, 1997: 193).

회는 언젠가 한-일 간 대등한 관계를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하지만 이 당시 박정희가 위협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보다는 북한, 나아가 공산주의였다. 이는 한일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공을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던 그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물론 그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의 명분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강정인·하상복, 2012: 188).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 당시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에게 있어 당장 뛰어넘어야 할 눈앞의 산은 일본이 아니라 체제 경쟁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던 북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2</sup>

따라서 정권 초기의 박정희는 북한을 경쟁상대로 보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미-일이 중심인 극동의 안보·경제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의 시작을 알린 명분 자체가 경제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상기한 것과 같이 60년대 들어서는 미국 또한 한일관계의 진전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에 전반적인 상황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당시의 박정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명확한 우방이었던 미-일에 반발하기보다 이를 수용하는 편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더욱 이익일 것으로 판단

<sup>20</sup> 이러한 박정희의 생각은 1965년 6월 23일의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서 드러난다. 그는 여기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고 대등한, 혹은 그보다 더 앞선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그가 장차 일본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연설문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일종의 레토릭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그가 일본을 경쟁 대상으로도 고려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준다.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연설 일자 1965. 6. 23.,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5566&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5566&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sup>21</sup>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연설 일자 1965. 6. 23.,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5566&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5566&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sup>22</sup> 박정희가 북한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본인의 저서와 연설에서 드러난다. 그는 60년대부터 북한을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있다가, 70년대에 이르러 북한보다 앞서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박정희, 1997: 246; “1972년 연두 기자회견”, 연설 일자 1972. 1. 1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313&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313&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박정희 정권 후기의 변화

이승만의 대일 및 한미일 관계 인식이 비교적 일관되었던 것에 반해, 박정희의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이때 변화의 시점은 베트남 전쟁에 한국이 참전하게 된 시기와 맞물린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하면서 또한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증가하게 되었다(홍규덕, 1993: 24-32). 이는 그야말로 “한미관계를 미일관계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박태균, 2013: 340). 박정희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나설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한미일 관계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역할로서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다(박태균, 2006: 132). 당시 박정희는 지역적 집단 안보의 구축을 구상하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그 중심이 될 것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한다(박태균, 2011: 22-27). 평화헌법으로 군사상 여러 제약을 받는 일본과는 분명히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박정희가 포착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바람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미 간에는 새 조약의 체결이나 기존 조약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다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박태균, 2013: 340). 당시 미국의 포터 대사는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빌미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정치나 경제 혹은 방위 분야를 막론한 그들의 욕망, 그리고 미국 정부의 각별한 배려를 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미-한 간의 “특별한 관계”가 파월 한국군을 통해 강화되었다는 느낌이 한국 정부와 한국 대중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sup>23</sup>

<sup>23</sup> “13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5, 196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 <https://www.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4-68v29p1/d134>(검색일: 2021. 10. 28.).

상기한 부분에서 포터 대사의 발언에는 한국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여실히 묻어나고 있다. 박정희로 대표되던 한국 정부가 그랬던 청사진이 무엇이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는 지나친 욕심으로 비쳤으리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의도했었던, 보다 더 긴밀하고 새로운 한미관계도 무산되고 말았다. 미국은 박정희의 기대와는 달리 움직였고 그로 인해 한미관계는 틀어졌으며,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그야말로 그 정점을 찍는 것이었다.

그러나 「닉슨 독트린」은 한편으로 아시아 제국의 자주(自主)와 자조(自助)를 강조하면서 경제 원조 등 일련의 지원을 다짐하기는 하였으나, 미국 내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세계 제3의 공업국가로 등장한 일본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를 전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정희, 1971: 193-194).

당시 중국은 닉슨 독트린을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미군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김남수·신육희, 2015: 141)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위의 글을 보면, 그 역시 중국과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정희가 미국이 여전히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로서 닉슨독트린을 이해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국은 현실적으로 미·일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불만스러운 지언정 미일관계의 여전히 돈독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 대신에 일본을 반공의 대역으로 내세우자 하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을 반공 대역으로 내세우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만약에 일본의 이러한 역할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집단 안보의 일환으로서 제기되는 문제라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의 일익을 일본도 담당한다는 그런 뜻이라면 우리로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문제로 일본의 국내 문제라든지 일본의 정치 체제라든지 또는 일본 국내의 여론 등으로 보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가

은 장래에는 이것이 실현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sup>24</sup>

본 글에서 박정희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에 있어 미국이 일본에 부여한 역할을 그가 결국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전술했던바 박정희가 새롭게 그리던 한미관계의 모습을 상기해 본다면, 이러한 생각은 그에게 대단히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와 같은 불편한 감정 때문인지, 상기한 인용문의 후미에서는 박정희가 미국이 일본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연 일본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는 곧 미국이나 일본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도 안보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고,<sup>25</sup> 이에 따라 자주국방과 새로운 외교 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핵을 개발하려 하던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권 초기의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발전 모델로 삼아 한국의 성장을 추진했던 만큼 한미일 관계 내의 위계적 지위, 즉 미국-일본-한국 순의 위계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중요한 국제적 경쟁 대상으로 보았던 이승만과는 달리 박정희는 일본보다는 북한을 더 주요한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미-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꾀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자 박정희는 이를 계기로 미일관계와 유사한, 혹은 그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실패

<sup>24</sup> “연초 기자회견”, 연설 일자 1971. 1. 1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5.).

<sup>25</sup> 박정희는 1971년 1월 11일에 진행한 연초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할 것은 물론, 중립국 및 비적대적인 공산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국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일 외 다른 세력과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정희는 본인의 저서 『민족중흥의 길』에서 ‘냉전 시기에는 자유 진영의 지원을 신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방을 타국에 마냥 의존할 수 없다’는 요지의 글을 쓰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자유 진영의 우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주국방 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연초 기자회견”, 연설 일자 1971. 1. 1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6222&catid=c_pa02062)(검색일: 2021.10. 15.); 朴正熙(1978: 186) 참고.

로 돌아갔고, 결국 박정희는 한미일 관계 내의 위계질서를 인정하면서 다각적인 외교와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 IV. 이승만과 박정희의 인식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승만과 박정희는 미국과 일본 간 긴밀한 관계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국이 이루는 동아시아 한미일 삼각관계의 위계성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하여 조금 다른 성질의 인식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의 대응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sup>26</sup>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승만은 일본을 일종의 경쟁상대로 여기고, 임기 내내 미국의 호의적인 대일본 태도를 비판하며 일본이 아닌 한국이 극동의 자유주의 중심 국가로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한미일 삼각관계의 위계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승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대일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는, 일본보다는 북한에 좀 더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따라서 그는 미일관계가 극동 자유주의 질서의 중심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한국이 협력함으로써 미-일로부터 원조와 협조를 받아 한국 국내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승만이 비교적 일관되게 한미일 위계에 저항한 것과 달리, 박정희는 초기에는 이를 수용하다가 중·후반기에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반공’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한미일 관계를 다르게 인식함에 따라 ‘반공’이라는 전략을 다르게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친공산적이라고 비난하며,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보다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를 근거로 이용하였다. 반면 박정희는 ‘반공을 위해서라

<sup>26</sup> 다만, 두 대통령이 지녔던 대일 인식의 차이 자체가 두 사람이 살았던 시간 및 조건이 다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up>27</sup> 상기한 바 있지만, 박정희가 일본에 대해 아무런 견제 의식도 가지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박태균, 2006: 129).

면' 한-일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는 미-일-한의 위계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두 대통령이 같은 정책 기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상호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두 사람이 위계적인 삼각관계의 수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후 박정희 정권이 중·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역시도 이승만처럼 한미일 관계의 위계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시도하게 된다. 다만 그 시도의 접근 방식에는 두 대통령 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승만이 미국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일본을 비판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임기 말까지 지속되었다면, 박정희는 일본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차원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8</sup> 이러한 점은 두 사람의 대일 인식이 다를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 주며,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한미일 관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초래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이승만은 집권 초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에서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미국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돈독한 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관대한 대일 정책을 전개해 나가자, 이승만은 부정적인 대일 인식에 기반하여 임기 내내 미국의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그는 미국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우선하고

<sup>28</sup> 박태균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으로서 일본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박태균, 2006: 132-133).

한국은 차선으로 인식했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한 위계적인 삼각관계를 이승만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일본에 대해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승만은 일본이 여전히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친공산주의적 국가이므로 미국의 영구한 동맹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며, 또한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입장은 그가 1957년에 한 연설에서의 아주 함축적이고 간결한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

일본은 공산당과 합해 가지고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일본이 우리의 제일 큰 원수라는 것이다. 그들은 수 백년 전부터 우리를 침범해 온 것이다.<sup>29</sup>

물론 이승만이 일본과의 관계를 영영 단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미국의 중심 동맹국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반면 박정희는 정권 초기에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수용하고, 미-일이 구축한 체제 속에 편입되려 노력하였다. 그는 이승만만큼 부정적인 대일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일본의 발전상을 주목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권 초기의 박정희는 국제사회에서 혹은 자유 진영 내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떠한가보다는 국내적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서 일본과의 협상을 위한 회담에 나서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 그 어떤 다른 부분의 개혁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박정희 저, 1997: 265) 한미일 관계와 같은 외교적 문제는 경제발전 이후로 미루고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기실 그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이었던 존재는 일본이 아니라, 지척의 체제 경쟁 대상이었던 북한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전략적인 가치가 상승하자, 박정희 역시 이승만과 유사하게 한미관계를 미일관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up>29</sup> “밖으로는 외적을 막고 안으로는 화목하라, 제주도 시찰에서”, 연설 일자 1957. 12. 7.,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1260&catid=c\\_pa02062](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11260&catid=c_pa02062)(검색일: 2021. 10. 18.).

그러한 시도는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결국 좌절되었고, 이로써 박정희는 한미일 관계의 위계를 받아들여 자주국방, 그리고 보다 폭넓은 외교 전략의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 모두 한미일 삼각의 위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이들의 대응 방식은 각자의 대일 인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삼각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후 형성된 위계적인 한미일 관계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당시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의 논의가 냉전기 한국 외교와 현재의 동북아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앞으로의 연구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2년 2월 15일 | 심사일: 2022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3일

## 참고문헌

- 강정인·하상복. 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현대정치연구』 제5권 제1호, 181-215.
- 김남수·신옥희. 2015. “1972년 미중 테탕트에서 ‘미일동맹 문제’ 처리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7집 제1호, 135-164.
- 김영호. 2016. “이승만의 국제정치관에 관한 연구: 『일본내막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제1호, 123-149.
- 김일영. 2000.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북진·반일정책과 국내 정치경제와의 연계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243-262.
- 김정렴. 1997. 『아, 박정희: 김정렴 정치 회고록』, 중앙M&B.
- 문상석. 2021. “박정희 잔재의 사회적 기원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4권 1호, 153-200.
- 신옥희. 2004.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제1호, 37-62.

- \_\_\_\_\_. 202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미일 관계의 위계성 구성.” 『한국과 국제정치』 36권 3호, 43-65.
- 신주백. 2002. “특집: 식민지 경험과 박정희 시대 滿洲國軍 속의 朝鮮人 將校와 韓國軍.” 『역사문제연구』 9권 0호, 77-132.
- 박영준. 2009. “이승만의 국제질서인식과 일본관: 식민지 시기에 있어 망국(亡國)과 건국(建國)의 문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1집 1호, 77-113.
- \_\_\_\_\_. 2021.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형성의 기원: 냉전기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국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2집 2호, 5-42.
- 박정희. 1962. 『우리 民族의 나갈 길: 社會再建의 理念』. 동아출판사.
- \_\_\_\_\_. 1971. 『民族의 底力』. 광명출판사.
- \_\_\_\_\_. 1978. 『民族中興의 길』. 광명출판사.
- \_\_\_\_\_. 저. 조갑제 해설. 1997. 『國家와 革命과 나』. 지구촌.
- 박진희. 2006.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통권 76호, 98-119.
- 박태균. 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통권 76호, 151-174.
- \_\_\_\_\_. 2010.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일본비평』 3호, 98-119.
- \_\_\_\_\_. 201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세계정치』 14, 11-39.
- \_\_\_\_\_. 2013.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군사』 제89호, 331-361.
- 유지아. 2014. “전후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과정에 나타난 미군의 일본주둔과 일본재군비 논의.” 『일본학연구』 제41집, 95-121.
- 이승만 저. 김창주 역. 2015. 『일본의 침략근성 그 실체를 밝힌다』. 행복우물.
- 이종관. 2010. “6·25전쟁과 한·미·일 공조(共助)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군사』 74, 179-215.
- 이준식. 2009. “박정희의 식민지 체험과 박정희시대의 기원.” 『역사비평』 통권 89호, 236-256.
- 이철순. 2000.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신. 2012. “동아시아 분단체제와 안보분업구조의 형성: 동아시아의 전후 국가형성 연구를 위한 하나의 접근.” 『사회와 역사』 94호, 5-48.
- 조아라. 2014.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10호, 270-307.

- 차, 빅터 D. 저. 김일영·문순보 역. 2004.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문학과지성사.
- 차상철. 2001.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13권, 121-167.
- 최희식. 2009. “이승만 정부 시기의 한일관계: 한미일 냉전전략의 불협화음과 한일관계의 정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제3호, 121-146.
- \_\_\_\_\_. 2011. “한미일 협력체제 제도화 과정 연구: 1969년 한미일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권 1호, 289-323.
- 한석정. 2010. “박정희, 혹은 만주국관 하이 모더니즘의 확산.” 『일본비평』 3호, 120-137.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편. 2012.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I』. 성남: 대통령기록관.
- 현진덕. 2013. “요시다 노선과 하토야마 노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2개의 이념형.” 『일본문화연구』 45, 607-626.
- 洪圭德. 1993. “派兵外交와 安保신드롬: 60年代 韓國 外交政策의 評價.”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23-44.
- Kim, Seung Young. 2009. *American Diplomacy and Strategy toward Korea and Northeast Asia 1882-1950 and After: Perception of Polarity and US Commitment to a Periphery*. Palgrave Macmillan.
- Swenson-Wright, John. 2005. *Unequal Allies?: United States Security and Alliance Policy toward Japan, 1945-1960*.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외교문서 및 서한(\*하기의 외교문서 및 서한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참고한 자료이다.)

-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portal/com/viewMainPage.do>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우리의 각오.” 연설 일자 1948. 8. 15.(검색일: 2021. 10. 15.)
- “렘니처 장군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7. 6. 1.(검색일: 2022. 2. 10.)
-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초고).” 생산연도 1957. 12. 19.(검색일: 2022. 2. 10.)
- “미국 온정에 영원히 감사하자.” 연설 일자 1949. 6. 9.(검색일: 2021. 10. 18.)
- “박정희 대통령연설.” 연설 일자 1964.(검색일: 2021. 10. 18.)
- “밖으로는 외적을 막고 안으로는 화목하라, 제주도 시찰에서.” 연설 일자 1957. 12. 7.(검색일: 2021. 10. 18.)

- “연초 기자회견.” 연설 일자 1971. 1. 11.(검색일: 2021. 10. 15.)
- “이승만 대통령이 딜레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8. 1. 23.(검색일: 2021. 10. 18.)
-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생산연도 1953. 7. 11.(검색일: 2022. 2. 11.)
-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4. 11. 5.(검색일: 2021. 10. 18.)
-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54. 11. 29.(검색일: 2021. 10. 18.)
-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운동의 역사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아 Lemnitzer에게 보낸 서한.” 연도미상(검색일: 2021. 10. 18.)
- “이승만 대통령이 General John B. Coulter에게 보낸 서한.” 생산연도 1960. 1. 6.(검색일: 2021. 10. 18.)
- “자발적 결심과 노력으로 파괴된 조국을 재건하자.” 연설 일자 1954. 9. 20.(검색일: 2021. 10. 18.)
-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유 아주(亞洲) 국가는 미(美)의 대아정책(對亞政策)을 주시.” 연설 일자 1954. 8. 30.(검색일: 2021. 10. 18.)
- “한일 협상에 대하여.” 연설 일자 1949. 9. 20.(검색일: 2021. 10. 15.)
-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연설 일자 1965. 6. 23.(검색일: 2021. 10. 18.)
- “1965년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 일자 1965. 1. 16.(검색일: 2021. 10. 18.)
- “1972년 연두 기자회견.” 연설 일자 1972. 1. 11.(검색일: 2021. 10. 18.)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history.state.gov/>  
 “134.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5, 196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ume XXIX, Part 1, Korea.(검색일: 2021. 10. 28.)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sidents Syngman Rhee and Chung-hee Park to the Hierarchy of Korea-U.S.-Japan Relations: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Japan

Jiwon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how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the two presidents of South Korea (hereafter, Korea) in the Cold War, were understanding the hierarchies of Korea-United States-Japan relations.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attempts to pay attention to the two president's perception of Japan. Rhee criticized the generous policy of U.S. to Japan that had been started after the Korean War, and argued that Korea is a more reliable ally than Japan for the U.S. This shows that Rhee did not accept the hierarchies. Meanwhile, Park accepted the hierarchy of Korea-U.S.-Japan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the administration, even though he was aware of its existence. However, as Korea's strategic value rose after the Vietnam War, Park also attempted to upgrade Korea-U.S. relations as equal as U.S.-Japan relations. The two president's response methods differed slightly, but they promoted their own efforts to raise Korea's position in the Korea-U.S.-Japan triangle.

**Keywords** | Rhee Syngman, Park Chung-hee, Korea-United States-Japan triangle, Hierarchy, Perception of Japan

